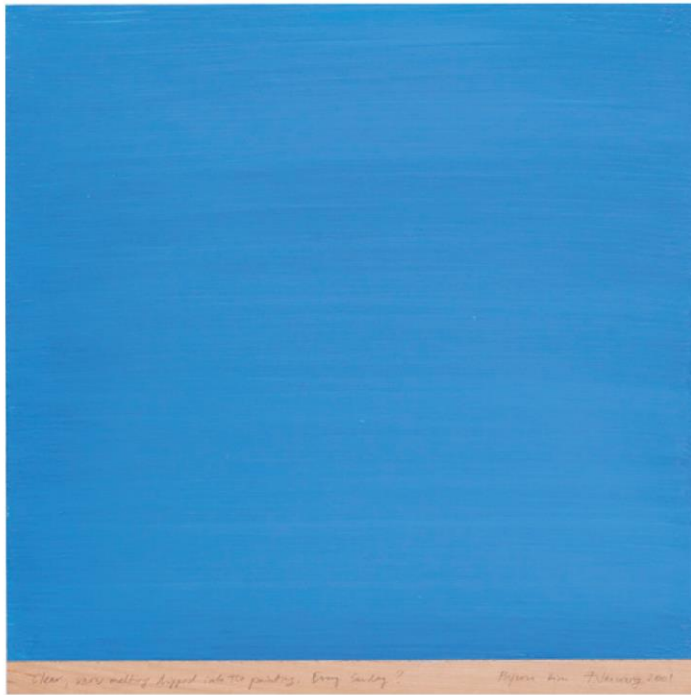


# 일상의 예술

April 2023 | 윤혜경 에디터

Page 1 of 8

SPECIAL\_INSPARATION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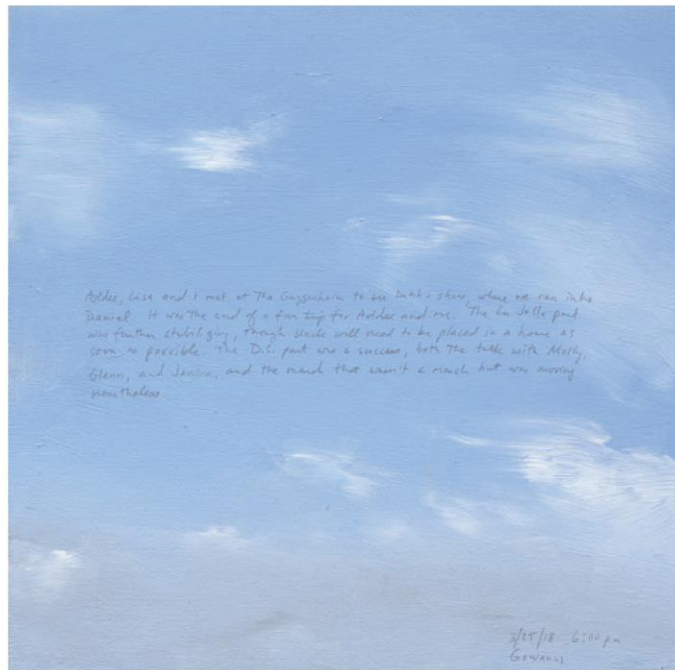


바이런 김(B. 1961) <Sundry Painting 1/1/01> 2001, Acrylic and pencil on panel, 35.5 x 35.5 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Kaje Gallery,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 미술가 바이런 김 일상의 예술

바이런 김은 가장 사적인 경험에서부터 인류와 자연 간의 광활한 연결을 아우르는 작품 세계를 펼쳐왔다. 평범할 법한 요소에서 깊은 의미를 추출해 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탐구한다. 그에게 일상에서 얻는 영감을 물어 보았다.

글 윤혜경 사진 제공 국제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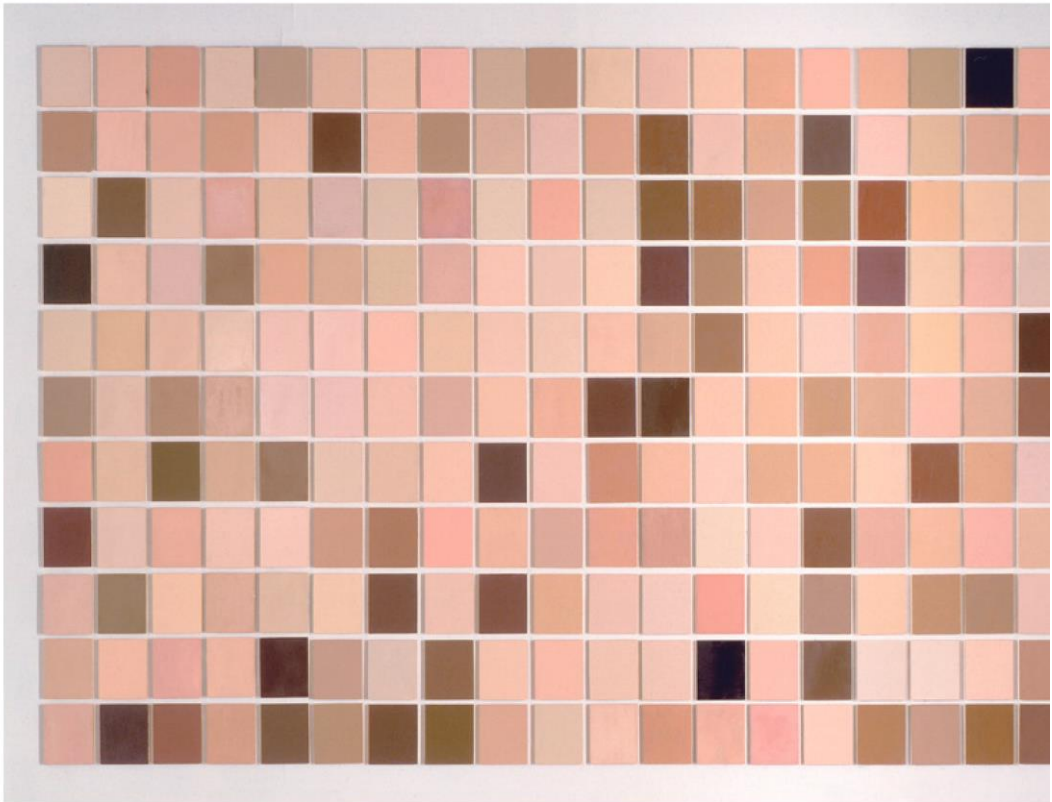


배인권 작(2018), 〈Sunday Paintings〉(선데이 페인팅), 2018, Acrylic and pen on canvas, 35.5 x 35.5 x 3.2 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Kedge Gallery, 사진: 안현호,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2018년 국제갤러리에서 선보인 개인전 <Sky>에서 ‘Sunday Paintings(선데이 페인팅)’는 지금도 매주 일요일에 그리면서 소소한 글을 적기도 하는 연작이다.(여행이나 출장 같은 상황에 따라 다른 요일에 그린 적도 있었다고 했지만) 이외에도 오랜 시간에 걸쳐 서사를 탐구한 ‘Synecdoche(제유법)’ 연작과 ‘B.Q.O.’ 연작 등을 선보였다. 영감의 원천은 무엇인가? 섬세한 관찰과 집중이 필요한 연속성이 특징인 작품을 만드는 동기는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첫 ‘Sunday Paintings’ 작품을 2001년 1월 7일에 제작했으니, 매주 하늘을 담은 페인팅을 제작해온지 벌써 22년이 넘는다. 그보다 10년 전에는 사람의 피부색을 묘사한 소형 유화 작업을 만들기 시작했다. 캔버스를 제작할 때마다 사람의 피부색을 자세히 관찰해(뺨뚱치 안쪽을 주로 관찰했다) 발견한 색감의 평균치를 찾아보았다. 이렇게 제작한 페인팅이 500점 넘게 있다. 이러한 ‘Synecdoche’ 연작의 과정을 통해 사람의 다양한 피부색을 상징하고 싶었을 뿐인데, 비평가들은 내가 ‘인종(race)’에 대한 의견을 표하려 했다고 생각한다. 미국인들은 ‘인종’이라는 주제에 워낙 열성적이기에 사람들이 이 작업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놀랍진 않다. 다만 나는 그저 어떠한 것을 가까이에서 관찰하려고 했을 뿐이다. 이것들이 모여서 더 큰 의미를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이것은 결국 내가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도 있을 것이다.

비엔던 김 (b. 1961), <색유화>, 1991-현재, Oil and wax on wood, 25.4 X 20.32 cm each (set of 275 panels) (Courtesy of the artist, 사진: Dennis Cowley, 인스타그램: 주석갤러리)



'Sunday Paintings'를 작업할 때 일주일에 한 번씩 일기를 쓰는 것이었을 것만 같다. 그 주에 있었던 일을 되짚어 보며 작업 하러 오는 길에 보았던 하늘과 그 심상을 그림에 담았다고 들었다. 한 인터뷰에서는 “하늘은 개개인의 작은 일상을 담고 있는 동시에 무한성을 지닌다”라고 전하기도 했다. 이렇듯 일상에서 영감을 얻고, 그 영감을 작품에 담아내는 요즘의 하루 일과와 루틴(습관)이 궁금하다.

친구들과 가족과 보내는 시간과 홀로 보내는 시간들을 번갈아 경험하며 나에게서 이러한 시간이 골고루 필요하다는 점을 깨달았다. 홀로 있는 시간은 주로 작업실에서 보낸다. 작업실에는 되도록

매일 가는 편이다. 보통은 현재를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항상 그렇게 하는데 성공하지는 못한다. 걱정이 많은 편이라 자꾸 과거 혹은 미래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좀 더 현재에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서울에 있는 동안 썼던 'Sunday Paintings' 연작 속 글귀를 소개한다.

“이곳에서 모험 가득한 3일을 보낸 지금, 찬바람이 불어온다. 우린 조금 전, 오래된 도시 성벽을 등산하고 돌아왔다. 오늘 아침, 리사(Lisa)와 나는 인사동 근처의 기원에서 바둑을 두었다. 우리가 그곳에 있는 동안, 바둑을 두려는 나이 든 노인들이 점점 더 공간을 채워갔다. 바둑 두 수를 몰리도록 배려 받았지만 리사는 그



바미연 김 (b. 1961), 〈색유판〉, 1992-1998, Oil and wax on wood, 25.4 x 20.32 cm each (Set of 25 panels) Courtesy of the artist,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중 한 명을 이겼다. 어젯밤 나와 리사와 에디(Addee)는 크리스틴 S(Christine S)와 함께 장어구이를 먹었다. 2023년 3월 12일 오후 6시, 서울.”

“어젯밤, 국제갤러리 카페에서 은아(Eunah), 주리(Joorhee), 클레어(Claire) 그리고 (자금은 홍콩에 있는) 찰스(Charles)와 함께 든든한 저녁을 먹었다. 정말 즐거운 대화를 나눴고, 특히 콘도그(corn dog)와 감자튀김은 놀라울 정도로 맛있었다. 부산 전시는 정말 멋지다. 모든 게 문제없이 준비되어 정말 다행이다. 클레어가 설치를 정말 잘했다. 호주로 떠나기 전에 편히 쉬고 싶다. 2023년 3월 20일 오전 8시 30분, 서울.”

여행은 일상을 벗어나는 일이라 때로는 조금 불편할 때도 있어서, 그동안 가족과 지내거나 새로 원래 알거나 새로 사귄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한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 올 때 가장 소외된 느낌이 든다. 스스로를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나의 언어적 능력은 어린 아이보다도 못하기 때문이다. 이상한 기분이다. 그 기분을 한국인들에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2018년 국제갤러리 서울점에서 개인전 <Sky>를 열었다. 이후 5년 만에 국제갤러리 부산점에서 개인전 <Marine Layer>을 4월 23일까지 개최한다. 바다와 거주는 영웅들에 관한 소설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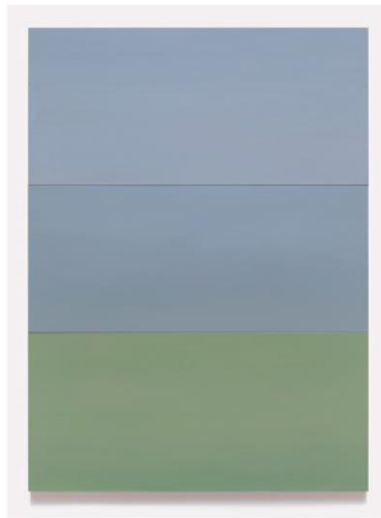
바이런 김(b. 1961), 《B.Q.O. 27》 2022, Acrylic on canvas, 182.9 x 121.9 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사진: 안천호,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바이런 김(b. 1961), 《B.Q.O. 28 (Near Cove)》 2022, Acrylic on canvas, 208 x 152 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사진: 안천호,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바이런 김(b. 1961), 《B.Q.O. 31 (Canyonview, UCSD)》 2022, Acrylic on canvas, 208 x 152 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사진: 안천호,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바이런 김(b. 1961), 《B.Q.O. 34 (Marine Layer)》 2023, Acrylic on canvas, 208 x 152 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사진: 안천호,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읽으며 떠올린 상상력이 바다에서 수영하고 잠수하는 강렬한 체감을 거치면서 'B.Q.O.' 연작의 영감으로 발현되었다고 들었다. 기민하고도 예리한 감각을 포착해 무한한 자연에 투영하는 특유의 창조력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대학교에서 19세기 시(19th century English poetry)를 공부하며 미적인 감각을 키웠던 것 같다. 그 당시 자연을 특별하게 생각하여 이를 작은 부분들로 나눠 관찰했던 시인들을 낭만주의자(romantics)라고 부른다. 나는 평소와 다른 노력 없이도 그들이 했던 관찰을 한다. 게임은 자기 자신, 게임의 상대(opponent), 그리고 인생 자체에 대해 많은 것들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욕심 부리면 벌 받게 되어 있다. 두려움에 제때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상대방은 당신의 약점을 이용해버리고 말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작은 바둑 돌을 알맞은 위치에 두는 것에 달려있다. 이러한 결정을 매번 계속해서 내려야 한다.

'Synecdoche' 연작을 1991년부터 작업해 1993년 휘트니 비엔날레(Whitney Biennial)에서 선보였다. 사람의 피부를 확대해 그린 이 작품들로 피부색으로 인한 인종차별 문제를 은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가장 사적인 영역과 전체적인 사회를 연결했던 작품 세계가 자연을 다루며 꾸준히 확장되어 왔다는 생각이 든다. 인류에서 자연으로, 개인에서 세계로, 부분에서 전체로, 평범

함에서 깊은 의미로 연계되는 작품 세계의 본질과 이상향을 이야기한다면?

난 이상적인 세상이라는 개념을 믿지 않는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금 이 세상 뿐이고, 이곳엔 많은 기쁨과 아름다움, 그리고 고통과 추악함이 존재한다. 난 어떠한 것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까이서 바라본다. 20여년 전, 뉴욕 브루클린에서 막내 아이를 유모차에 데리고 다니다가 장자의 글을 영문으로 번역한 텍스트를 발견한 적이 있다. 그 글은 시인 데이비드 힌튼(David Hinton)이 번역했는데, 이후 나와 그는 좋은 친구 사이가 됐다. 장자의 글과 도교(Taoism)를 공부하다 보면 (비록 나는 도교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지만), 굉장히 작은 존재가 무한에 빚대어지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장자의 창조신화(creation myth)를 읽다 보면 한 마리의 새가 땅에 있는 여러 마리의 새와 병기되어 묘사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낭만주의자들은 극소 대 무한대(infinitesimal versus infinite)와 같은 이러한 현상(phenomenon)을 '승고하다(sublime)'고 표현했다. 불운하게도, 난 깊은 불확실성에 빠졌을 때 이러한 기분을 느끼고, 이는 슬픔(sadness)과 불안함(anxiety)과 연관되어 있을 때가 보통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작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과정은 힘들지만, 그러한 사실이 위안이 되기도 한다.



비이마 엘레우테리(Eleuthera Island)상에서의 수중 체험을 담은 바이런 킴 작가의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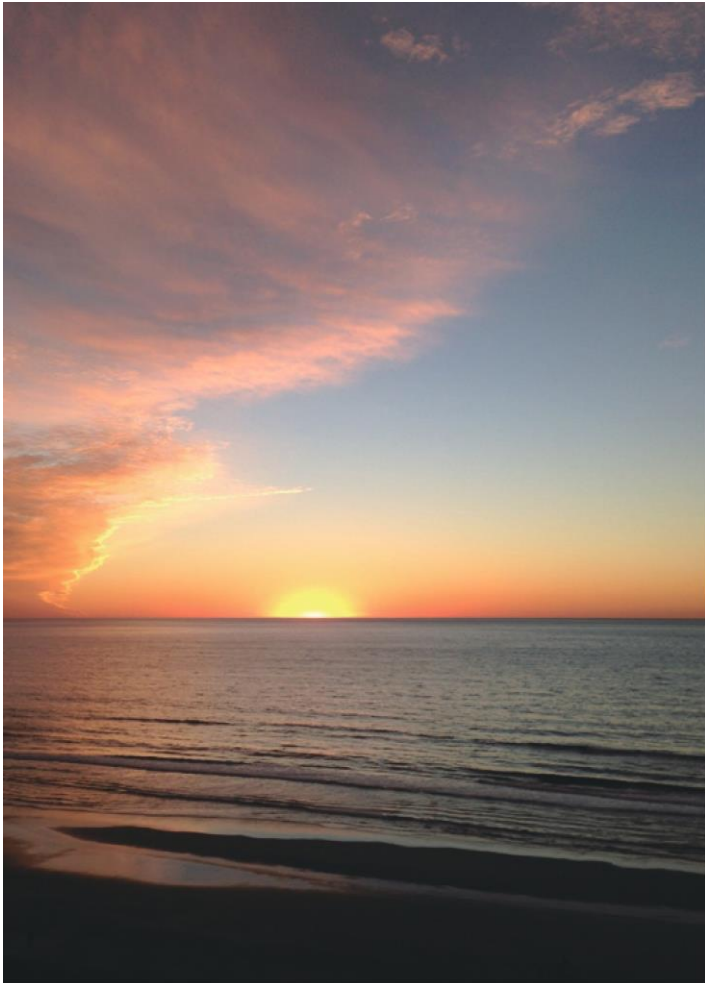
바이런 킴 작가가  
비하미 앨레우테라 섬에서  
바닷속 순간을 포착했다.



이번 'B.Q.O.' 연작에 대해 “바다에서 수영을 하며 나는 내 몸과 새로운 관계 형성을 할 수 있었다. 보통 나는 신체보다 상상과 정신의 공간을 우위에 둔다. 추상화에 대한 나의 성향과 맞닿아 있으니, 움직이는 수단으로서의 몸에 의지하는 것은 나를 추상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았는데, 모하게도 이는 나의 작업을 현실 기반인 재현으로 이끌어줬다.”라고 말했다. 추상과 재현을 넘어선 새로운 차원의 개념을 꿈꾸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 꿈을 어떻게 이뤄나가고 싶은지?

우와! 재현(representation)과 추상(abstraction)을 넘어선 개념이 적어도 회화라는 범위 내에선 무엇일지 모르겠다. 난 좁은 시야를 가진 작가로서, 적어도 머릿속은 완전히 통제 가능하다. 이러한 범위를 벗어날 경우 정신력(mind)과는 상관 없을 것 같다. 좀 더 육체 또는 감정과 연관되지 않을까 싶다. 난 아직 회화적 기술이 뛰어나진 않지만, 언제나 노력하고 있다. 언젠가 경지에 도달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바이런 킴 작가는 플로리다 주 캡티바 섬  
(Captiva Island)에서 머물며 얻은 소실에서  
'B.Q.O.' 연작의 영감을 얻었다. 그가  
캡티바 섬 안의 라우센버그 재단에 위치한  
피쉬하우스를 사진에 담았다.



바이런 김 작가가 바라본 샌디에이고 태평양 연안의 라호야(La Jolla) 해변의 노을.

**본지의 이번 특집 주제는 'Inspiration'이다. 영감을 이야기할 때 취향을 빼놓을 수 없다. 요즘 혹은 꾸준히 빠져 있거나 좋아하는 것은?**

바다 수영 외에는 바둑 두는 것을 좋아한다. 나의 부인이자 나처럼 작가 활동을 하는 리사 시갈(Lisa Sigal)과 바둑을 두기 시작했을 때 나의 실력은 남들과 비슷했기에 고와너스 옥시젠(Gowanus Oxygen)이라는 동아리를 만들었다. 다만 그 이후 난 뒤쳐지기 시작해서 이제는 더 이상 리사를 상대로 이길 수 없다. 바둑을 두기만 하면 모두에게 지기만 해서 답답하기도 하다. 더 열심히 바둑을 공부해야 하겠지만, 태생적으로 귀찮은 걸 많이 느끼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도 이게 가능하길 바라고 있다. 예술과 바둑을 접목해 작업할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 바이런 김 개인전 《Marine Layer》

바이런 김의 개인전 《Marine Layer》가 4월 23일까지 국제갤러리 부산점에서 개최된다. 하늘에서 바다로 옮겨진 그의 시선은 초창기 'B.Q.O.'연작에서부터 발견된다. 그는 플로리다 남부의 외딴 섬, 캡티바 섬(Captiva Island)에 머물렀던 한 달간 카약이나 패들보드를 타며 체험한 수중 환경을 통해 바다와 대결하는 세 명의 영웅적 인물들의 서사를 다른 소설들로부터 발현된 상상력을 신체적 현존에 접합하는 지점을 탐구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연작 제목 'B.Q.O.'는 스타니스와프 렘의 소설 『솔라리스』 주인공 버튼(Berton)에서 B, 허먼 멜빌의 소설 『모비 딕』 중 퀴케그(Queequeg)에서 Q, 호머의 소설 『오디세우스』에서 오디세우스(Odysseus)의 O를 가져온 것이다. 신화적인 판타지에 주목했던 초창기 'B.Q.O.' 작품들에 이어 이번 개인전 《Marine Layer》에서 새롭게 선보인 'B.Q.O.' 작품들은 어린 시절 바다를 처음 만났던 샌디에이고 태평양 연안의 라호야(La Jolla) 해변을 비롯해 코네티컷주의 토비 연못, 뉴욕과 샌디에이고의 실내 수영장 등에서 수영에 몰입하며 얻은 영감으로 가득하다. 물의 힘에 반응하는 잠수라는 행위를 통해 경험한 자연의 근본적인 힘과 그 속에 자리하는 강력한 감각을 펼쳐낸다.

#### 바이런 김(b. 1961)

캘리포니아 주의 라호야에서 태어나, 예일대학교(Yale University)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메인(Maine) 주의 스코히건 회화조각학교(Skowhegan School of Painting and Sculpture)에서 수학했다. 현재 뉴욕 브루클린에서 거주하며 활동 중이며, 예일대학교 미술학부의 선임 비평직(senior critic)을 겸하고 있다. 2022년 스코히건 회화 부문 훈장(Skowhegan Medal for Painting), 2019년 로버트 드 니로 시니어 상(Robert De Niro, Sr. Prize), 2017년 구겐하임재단 펠로우십의 순수미술 부문(Fine Arts Guggenheim Fellowship) 등을 수상했다. 미국과 한국에서 개인전과 단체전을 통해 작품을 선보여 왔으며, 휘트니 미술관(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을 비롯한 미국 각지의 주요 미술관에 그의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